

양곤 (미얀마) 투자 현황

2013. 2. 4.



목 차

I. 미얀마 국가 현황	3
II. 양곤 도시 현황	15
1. 일반현황	15
2. 도시 기초 현황	16
3. 경제 현황	17
4. 역사	18
5. 인프라	19
III. 대 양곤 (미얀마) 투자 동향 및 환경	23
1. 양곤 (미얀마) 및 인근 국가 투자 동향	23
2. 투자 환경	24
IV. 주요 국가 양곤 (미얀마) 투자 현황	31
1. 중국	31
2. 미국	32
3. 일본	33
4. 인도	35
V. 한국의 미얀마 진출 현황	36
VI. 참고 문헌	38

PART I. 미얀마 국가현황

1. 일반현황

● 국명 : 미얀마 연방 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1989년 버마에서 미얀마로 국명 변경
- 국가 상징 : 친테 Chinthe (상상 사자)



자료 : 네이버

<그림 1> 미얀마 국기



자료 : CIA FACTBOOK

<그림 2> 미얀마 국가 상징

●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 남쪽으로는 안다만해와 마타반만, 남서쪽으로는 벵갈만을 접함
- 동쪽으로는 태국(1,800km), 라오스(235km), 북쪽으로는 중국(2,185km), 서쪽으로는 인도(1,463km) 및 방글라데시(193km)와 접경(총 5,87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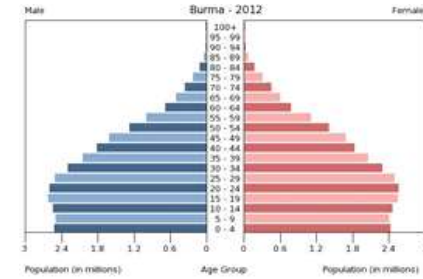
자료 : CIA FACTBOOK

<그림 3> 미얀마 위치

● 면적 : 676,577km² (한반도의 약 3배)

● 인구 : 54,584,650 (2012년 6월 추정치, 전 세계 24위)

- 인구 증가율 : 1.07% (전 세계 108위)
- 평균 수명 : 65.24세 (전 세계 168위)
- 주요 민족: 버마 (68%), 산족 (9%), 카렌족 (7%), 라키안족 (3%), 중국인 (3%), 인도인 (2%), 몬족 (2%), 기타 소수민족 (5%)



자료 : CIA FACTBOOK

<그림 4> 미얀마 성비

- 수도 : 네피도 (Nay Pyi Taw) ※ 2005년 양곤에서 이전
- 종교 : 불교(89.4%), 기독교(4.9%), 이슬람교(3.9%), 토속신앙(1.2%), 힌두교(0.5%)
- 주요 도시 : 양곤 (685만), 만달레이 (800만), 바고지역 (850만), 네피도 (99만)

2. 정치현황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정부 구성

- 대통령 : 떤세인 (U Thein Sein)
- 부통령 : 니안 흐툰 (NYAN HTUN), 사이 무옥 캄 (SAI MOUK KHAM)

● 인구 (11년, CIA 추정치) : 435만 (인구과밀도 : 7300/km²)

● 행정 구역 : 7개 지역 및 7개 주

- 특별 행정 구역 : 네피도
- 지역 : 야이아르위디, 바고, 마그웨이, 만달레이, 사가잉, 따란따라, 양곤
- 주 : 친주, 카친, 카야흐주, 카인주, 몸주, 라크하인주, 산주

● 독립일 :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 국경일

-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1월 4일
- 통합의 날 (Union Day): 2월 12일

● **법체계 : 영미법 및 관습법 혼합**

● **헌법 : 2008년 5월 29일 개정 승인, 2011년 관련 법령 개정**

● **의회**

- 상원 (Amyotha Hluttaw) : 총 224석 (직선제 : 168석, 균임명 : 56석)
 - 분포 : 통합단결발전당 74.8%/129석,
기타 정당 (SNDP, RNDP, NDF, AMRDP): 25.2% / 39석
- 하원 (Pythu Hluttaw) : 총 440석 (직선제 : 330석, 균임명 : 110명석)
 - 분포 : 통합단결발전당 79.6%/259석,
기타 정당 (SNDP, RNDP, NDF, AMRDP): 20.4% / 71석
- 임기 : 상하원 모두 5년

미얀마의 정당	
○ 2010년 현재 약 40여개의 정당이 정식 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요 정당은 5개 정당	
○ 통합단결발전당(US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창당 (당수 : 샤휌 만 SHWE MANN) - 현 미얀마의 여당으로 1993년 정부가 만든 연방단결발전연합 (USDA)의 후신으로 2010년 총선을 대비하여 공식 정당으로 전환 등록 - 정당 주장에 따르면 약 2,200백만의 당원이 소속된 정당 - 2010년 총선 시 상하원 통합 388석 확보 (상원 : 129개, 하원 : 259석)
○ 민족민주세력 (N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창당 (당수 : 탄 나인 Dr.THAN NYEIN) - 민주국민연맹 (NLD)의 총선 불참에 반대하고 제도권 정치 참여를 지지하는 일부 NLD 계열의 인사들이 조직한 정당 - NDF는 총선을 통해 의회에 진출 하였으나, 개표 시비가 발생과 NLD의 선거 비협조로 인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2010년 총선 시 상하원 통합 44석 확보 (상원 : 39개, 하원 : 5석)
○ 산족민주정당 (S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창당 (당수 : 흐쿤 훈 우 HKUN HTUN OO) - 미얀마 소수민족인 산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 2010년에도 상당한 인사를 의회에 진출 시킨 미얀마 제도권 제 2당 - 2010년 총선 시 상하원 통합 22석 확보 (상원 : 18개, 하원 : 4석)
○ 라카인족개발당(R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창당 (당수 : 아이 므그 Dr. AYE MG) - 미얀마 소수민족인 라카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 2010년 총선 시 상하원 통합 14석 확보 (상원: 6석, 하원: 8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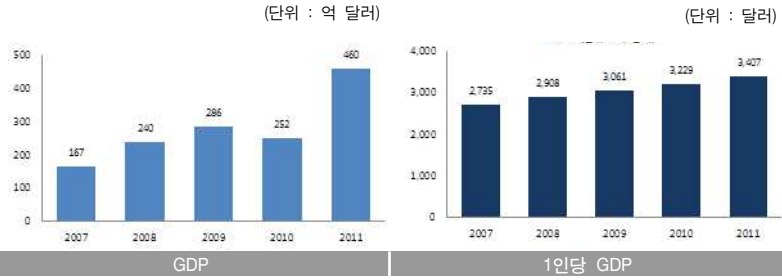
미얀마의 정당	
○ 민족지역민주당(AM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창당 (당수 : 나잉 나그윈 더인 NAING NGWE THEIN) - 미얀마 소수민족인 몽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 2010년 총선 시 상하원 통합 7석 확보 (상원 3석, 하원 4석)
○ 민주국민연맹 (N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창당 (당수 : 아웅산 수치 Aung San Suu Kyi) - 아웅산 수치여사 (당수)가 결성한 정당으로 미얀마의 대표적인 야당 - 2010년 총선 시 선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정당 등제를 포기하여 정당 자격을 상실, 현재는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재야 활동만을 하고 있음 - 서방세계와 일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미얀마의 완벽한 민주화가 달성될 시 제 1 정당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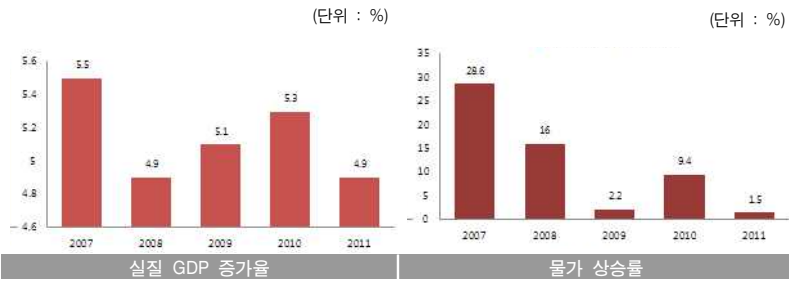
● **미얀마 가입 국제 단체 : 40개 단체 가입**

- 주요 단체 : 아시아개발은행,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 세계은행그룹 (IBRD, IDA),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통화기금, 국제원자력기구등

3. 경제현황

- **국내 총생산 : 460억 달러 (2011년 기준)**
 - 농업 : 39.3%, 산업, 18.7%, 서비스업: 42%
- **경제성장률 : 4.9% (2011년 기준, 전 세계 55위)**
- **1인당 GDP : 3,407달러 (2011 기준, 전 세계 204위)**
- **물가 상승률 : 1.5% (2011년 기준 전세계 125위)**





〈그림 5〉 최근 5년간 미얀마 주요 경제 지표

- **외환 보유고 : 141억불 (2011년 추정치, 전세계 118위)**
- **노동가능인구 : 3253만명 (2011년 기준 전세계 19위)**
 - 농업종사자 : 70%, 제조업 종사자 : 7%, 서비스업 종사자 23%
- **실업률 : 5.5% (2011년 기준 전세계 55위)**
- **주요 지하자원 : 원유, 목재, 주석, 아연, 구리, 텅스텐, 납, 석탄, 대리석, 귀금속, 천연가스등**
- **총 교역액 : 141억불 (2011년 추정치, 전 세계 118위)**
 - 수출 : 81억불 (주요 수출품 : 천연가스, 목재, 펄프, 콩, 수산물, 쌀, 의류등)
 - 수입 : 60억불 (주요 수입품 : 섬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비료, 플라스틱, 시멘트, 건설자재)

4. 미얀마 역사

- **고대 (BC 5세기 ~ AD 11세기 중반)**
 - 티베트 방면에서 티베트 및 버마어를 사용하는 제부족들이 남하하여 1044년까지 할거
 - BC 480년경 미얀마에 진출한 몬족은 BC 3세기에 첫번째 왕국인 수반나부미 (황금의 땅) 건설
 - ※ 몬족 : 중앙아시아로부터 미얀마에 이주한 최초의 종족으로 언어상 '몬-크메르어족'에 속하며, 현재 태국-캄보디아 근처에 주로 거주

● 바간(Bagan) 왕조(1056-1287)

- 1056년 아노야타(Anawrahta) 왕(1044-1077)이 몬족을 정복하고 중부 미얀마를 장악하여 바간 왕국을 창건함으로써, 버마족에 의한 최초의 통일 이룩
- 아노야타 왕은 Theravada 불교(상좌부불교)로 개종하여 미얀마 불교의 기틀 완성
 - 몬족의 불교는 Theravada 불교라 하여 미얀마 불교의 주류 형성

● 몽고의 침공과 분열(1287-1531)

- 1287년 쿠빌라이칸의 몽고군 침공으로 바간 왕조 붕괴
 - 몽고군은 1299년 퇴각
- 이후 200년간 산, 버마, 몬족 등 각 소수민족 국가가 병존하면서 패권쟁탈을 위한 각축전 전개
 - 몬족과 산족 간 40년 전쟁(1385-1425) 등

● 토웅구(Toungoo) 왕조(1531-1752)

- 1531년 따빈슈웨티(Tabinshwehti)가 폐구에 토웅구 왕조를 건립하여 두 번째 버마족의 제패를 기록
- 1752년 프랑스의 무력지원을 받은 몬족에 패망

● 폰바웅(Konbaung) 왕조(1758-1886)

- 1758년 알라우ン페야(Alaungpaya) 왕이 다시 몬족을 격퇴하고, 슈에보에 폰바웅 왕조를 건립
- 이는 제 3차 버마족의 패권쟁탈로, 미얀마 역사상 최대의 세력 확장

● 영국일본 식민시대(1886-1948)

- 폰바웅 왕조의 세력 확장은 결과적으로 당시 인도 내 영국 세력과 충돌, 제1차(1824-26), 2차(1852), 3차 전쟁(1885)을 거치면서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
- 1937년 4월 영국 의회가 개정 버마통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마는 인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식민지와 자치령의 중간적 법적 지위 획득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일본은 남기관(南機關)을 설치하여 '아웅산'을 중심으로 한 '30인의 동지'를 지원하였고, 버마 독립의용군을 조직하여 1942년 3월 양곤을 점령한 후 1945년 8월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버마를 지배
- 버마 독립을 위해 영국군 및 일본군과의 무장투쟁 과정 중 영웅이 된 아웅산 장군이 1947년 7월 각료회의 중 암살된 후 우누가 임시정부의 총리로 등장
- 1947년 12월 영국 의회의 '버마 독립 법안' 가결로 독립기반 형성

● **버마 독립과 우누의 사회주의(1948-1962)**

-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영국 연방에서도 탈퇴
 - 우누의 AFPFL(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이 집권(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엄정중립주의 표방)
- 우누 총리는 1962년 3월 네윈 총사령관의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10여 년간 재임하면서 신생국의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반란에 따른 내전 등으로 집권 기간 중 많은 어려움에 봉착

● **버마식 사회주의 (1962 ~ 1988)**

- 1962년 3월 네윈 장군이 군사쿠데타로 집권을 시작하면서 약 반세기간의 장기 군부 독재가 시작
 - 네윈 장군은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정신을 접목시킨 이론인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발표하여 ‘버마식 사회주의’ 기본 이념으로 통치(1963년 1월 발표)

버마식 사회주의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명칭은 사회주의 버마의 길(Burmese Way to Socialism)이며, 군사 쿠데타를 이끈 네윈이 들고나온 이론 ○ 이 이론은 ‘자력갱생 - 우리끼리 잘살자’ 라는 구호아래 당시 주요 개혁작업은 전 민간부문의 사업의 국유화 및 고립주의 (외국인 추방, 패쇄적 경제, 관광객에 대한 방해) 정책등이 있음

- 버마식 사회주의는 경제, 사회의 효율성 저하와 민간 부문의 활력 감소, 군부독재로 인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국민들의 불만을 유발, 그로인하여 1988년 3월 수개월간의 대규모 정부시위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군과 민의 충돌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정부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네윈은 1998년 7월 사임

● **민주화 운동과 현 군사 정부의 등장**

- 1988년 3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의 중심으로 한 민중의 반 정부 시위와 네윈의 사임의 시기를 “양곤의 봄”이라 명명
 - 이 시기에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버마의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배경 등에 힘입어 국민적인 지지 획득
- 1988년 판쉐장군이 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SLORC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를 앞세워 정부를 장악

- SLORC은 정부 모든 기관에 군림하여 입법, 사법, 행정등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으며 사회주의 포기 및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도입 천명
- SLORC은 결속이라는 의미를 지닌 ‘미얀마 연방’로 국호를 변경
- 1988년 친위 쿠데타로 의회가 해산 이후, 1990년 5월 새로운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되어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 (NLD)가 압승을 하였으나, 군부는 무효로 선언하였고 이후 아웅산 수지여사는 3차례의 가택연금 끝에 2010년 11월 13일 연금에서 해제

아웅산 수지(1945년 6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웅 산 수 치(1945년 6월 19일~)는 미얀마(버마)의 비폭력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서 미얀마 최대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의 당수,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라프토상과 사하로프상, 노벨 평화상(1991)을 수상하였음. 2010년까지 미얀마 군사 정권에 의해 가택 연금 처분을 받음. ○ 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6월에 암살된 아웅 산 장군과 킨 치 전 인도 대사의 딸로 전 양곤(랑군)에서 태어남 - 민주화 운동가 이전 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년 시절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고등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한 것이 그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침 • 1964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을 진행 하여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 • 대학 졸업 후 영국 유학 중 만난 티베트 연구 학자 마이클 아리리와 결혼해 인도에서 거주 - 민주화 운동가로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웅 산 수 치 여사는 마침 그 해,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미얀마에 돌아옴. • 1988년 8월 8일 오전 8시 랑군(현 양곤)항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을 신호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8888 항쟁이라고 불림. • 19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 이래 26년 만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음. • 유흥집업 닷새째 결국 군부는 지도부를 교체하며 정치 전면에서 물났음. • 그러나 실각 위기를 기회로 삼아 1988년 9월 18일 소 마웅 장군의 신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무자비한 학살로 신군부는 정권을 재장악. • 그 달 말인 9월 24일, 아웅 산 수지 여사를 총비서로 민족민주동맹(NLD)가 만들어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대모로 부각 - 가택 연금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7월 20일 민족민주동맹 결성을 도운 이유로 군부에게 가택연금에 처해짐 • 1990년 총선거 수지 여사의 민족민주동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군정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독재를 이어감 • 가택 연금 중이 1991년 미얀마의 민주화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 • 2010년 5월 수치의 민족민주동맹이 군부에 의해 강제 해체됨 • 2010년 실시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수지여사가 미얀마 내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여 그해 11월 13일 21년만에 가택 연금 해제

아웅산 수치(1945년 6월 19일~)

○ 평가

- 긍정적 평가
 -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90년 총선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현재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평가 받음
 - 특히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화 운동은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기초로 하여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폭력적인 시위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으로 하여, 폭력을 통한 폭력의 항거가 아니라는 점이 긍정적인 점임
 - 또한 가택연금 중에서 끊임 없이 서방세계와의 연락을 지속하여 미얀마 인권 실태를 외부에 고발하여, 서방 세계에서 미얀마라는 존재를 잊혀지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음
- 부정적 평가
 - 일부에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화가 서방세계에 의존도가 높아, 그녀가 정권을 잡을 시에 민주화의 덫가로 미얀마의 경제와 사회가 서방에 종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있음.

● 군사정부의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 (2003 ~ 2011. 3 완료)

- 2003년 7월말 미국은 대 미얀마 경제조치와 서방세계의 민주화 요구로 인하여 2003년 8월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로 가는 7단계 로드맵을 발표
 -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조치는 미얀마 신규 투자 동결, 고위 인사 비자 발급 중단, 미얀마 정부 자산 동결, 원조 중단, 국제금융기구의 대미얀마 금융 지원 시 반대, 대미얀마 송금 금지, 미얀마산 제품 전면 수입 금지등을 포함한 재제
- 2004년 5월 로드맵에 따라 신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1차 회의)를 개최
- 2005년 11월 내피도로 행정 수도 이전
- 2007년 샤프란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얀마 반정부시위 발발
- 2008년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에도 불구하고 헌법 초안에 대한 투표를 강행하였고 약 92%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
- 2010년 11월 총선을 통해 의회 구성(연방의회, 지방의회)
- 2011년 2월 연방의회를 개원하여 3명의 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하원 출신 부통령인 페인 세인 현 총리겸 USDP 당수를 민선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
- 2011년 3월 군정 통치기구 SPDC의 마지막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권한을 민선 정부에 이양하고 공식적으로 해체
- 2011년 3월 신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는 일련의 대통령령을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신정부 활동 개시

2007년 미얀마 반 정부 시위(샤프란 혁명)

- 2007년 미얀마에서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반 정부 시위를 지칭함. 이 당시에 시위에 다수의 승려들이 참여하자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는 승려들이 샤프란색 (연황)색 옷을 입는다 하여 샤프란 혁명 (Safron Revolution)이라고 부르기도 함.
- 시위 진행 과정
 - 시위 발발 경위
 - 2007년 미얀마 군부는 8월 15일 예고 없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기존에 5배, 경유 2배, 휴발유 2배 인상을 발표하면서 반발이 발생
 - 시위 초기에는 일부 주민, 학생들과 반정부 행동주의자에 의한 산발적 시위였음.
 - 시위 확산
 - 9월 5월 승려와 군인들의 무력 충돌 시 체포된 승려의 석방을 군부가 거부로 인하여 불교 승려들이 시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짐
 - 9월 22일 시위를 주도하는 승려와 시위대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시위의 지지를 소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시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군부의 진압
 - 시위 발발 직후 인 9월 6일 0시를 기해 양곤과 만달레이에 60일간 야간 통행금지와 집회를 금지 조치를 발표
 - 군부는 시위대 해산을 위하여 강제 무력 (최루탄, 총, 수류탄) 행사하였음
 - 특히 군부는 미얀마내의 승려들의 영향력 확산을 두려워 하여 불교 사원에 들어가 총과 수류탄을 쏘면 승려의 시위 참여를 저지 하였으며 외출도 통제 하였음
 - 군부의 언론 통제
 - 군부는 시위 상황을 생중계한 인터넷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차단하고, 시위대, 승려, 국내 외 기자들의 모든 통신을 끊었음
 - 미얀마 군부는 해외 언론의 출입 취재를 통제 하기 위하여 시위 직후 미얀마 국적 항공의 국제선노선 운항 금지를 함
 - 국제 사회의 노력
 - 9월 말부터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강경진압과 미얀마 민주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군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함
 - 유럽 연합은 미얀마의 유혈시위가 지속된다면 추가 경제제재를 경고 하였음.
 - 특히, 유엔은 10월 2일 군부의 무력 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브라힘 감바리 특사를 미얀마로 급파해 미얀마 군부지도자들과 만나 시위에 관련하여 면담을 함
 - 시위 종료
 - 시위는 군부의 강경 진압, 국제사회의 비난, 장기간 시위로 인한 피로감등으로 인하여 2007년 10월경 시위가 잠잠해짐
 - 10월에는 양곤 시내의 야간 통금완화와 인터넷이 재개통되었음, 11월에는 통행금지도 해제되어 평온을 되찾았음
- 사상자
 - 사상자 수는 언론과 미얀마 군부가 발표한 통계가 제각각 달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군부 발표에 따르면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다쳤다고 발표 하지만 미국의 반 미얀마군부독재인 '버마를 위한 미국운동'은 사망자가 200명이라고 발표
- 평가
 - 샤프란 시위는 중국과 러시아등 미얀마의 전통적 지지들도 유혈진압의 반대성명을 발표하여 군부독재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시위 직후인 2008년 미얀마 군부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미얀마의 민주화에 상당한 영향 준 것으로 평가

5. 한국과의 관계

- **수교일자** : 1975. 5. 16
- **교민현황** : 1,408명 (2010년 기준)
- **교역액** : 6.39억불
 - 수출 : 4.79억불 (주요 수출품 : 철강, 기계, 컴퓨터, 플라스틱, 가죽등)
 - 수입 : 1.69억불 (의류, 식물조제품, 고무제품, 채소 등)
- **원조 (1991 ~ 2010)** : 무상 - 32백만불, 유상 - 84.7백만불
- **주요 사건**
 - 1975년 미얀마와 수교
 - ※ 비동맹국가연합인 미얀마와는 수교이후 특별한 교류가 없었음
 - 1983년 아웅산묘소 폭파사건으로 한국의 주요요인들 사망

아웅산 테러 사건

- 북한이 1983. 10. 9일 당시 버마 (미얀마)를 방문중인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테러 사건
- 당시 사건으로 공식·비 공식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음
- 사건 이후 미얀마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테러 당사자인 진모소좌외 2명은 사형을 받음

- 1988년 집권한 미얀마 신군부는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원칙을 철회하고 한국과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하며 양국 간의 우호협력을 개선 시작
- 1989년 3월 서울 한남동에 주한 미얀마 상주대사관 설치
- 1989년 한국기업 당시 유공 (현 SK)에게 원유탐사권 자격을 부여
- 1989년 UN 44차 총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최초로 한국입장 지지를 표명
- 1989년 UN 44차 총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최초로 한국입장 지지를 표명
- 2005년 한 -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시 미얀마 태인 세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과 정상 회담
-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 외교통상부 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정부부처 요인과 대기업들을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이 미얀마 공식 방문

미얀마의 한류

- 미얀마는 현재 한류 열풍의 한가운데 서있음. 미얀마의 한류 열풍은 드라마와 영화 중심으로 불고 있음.
- 현재 미얀마에서는 지상파 3개 채널의 프리미엄 시간대 (17 ~ 20시)에는 여지없이 한국드라마가 방영되고, 5개의 채널이 있는 1개 유선방송사의 한국 드라마 점유율은 약 80%이상임
- 특히 영상 속에 나오는 한국 배우의 옷차림은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을 새롭게 바꾸고 삽입곡들은 국내 가요 일색이었던 가요시대에 일대적인 파장을 이르킴. 또한 한국음식에 관한 관심들은 양곤 시내 한국식당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한인사회의 상업적 이익도 가져다주고 있음
- 한류는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생산해 냈고, 이는 양자 관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중이며, 계약에 의한 파트너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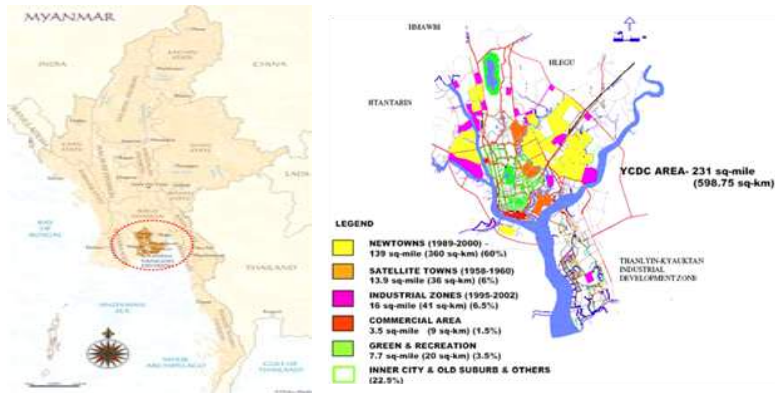
미얀마의 또 다른 한류 박정희

- 국가의 근대화라는 짐을 지게 된 군부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경제발전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을 그들의 본보기로 삼고자함. 일부 고위 군 관료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일대기를 연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나아가야할 바를 제시하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군부는 민간의 옷을 입고 갈아 입은 후 한국의 군부정권이 정부주도의 개혁과 개방을 주도할 포부를 밝히고 있음.

PART II. 양곤 도시현황

1. 일반현황

- 면적 : 598.75km² (서울의 1.5배)
- 지리적 위치 : 동경 96°09', 북위16°48' 위치
- 인구 (11년, CIA 추정치) : 550만 (인구과밀도 : 9166.67/km²)
 - 구성 : 버마족, 산족, 카렌, 라키안족, 중국인, 인도인, 몬족, 기타 소수민족
 - 종교 :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자료 : 2010_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Yangon_Than

양곤 위치도

양곤 토지 이용 현황



자료: Weekly Eleven 주간지

양곤 시내 전경

(그림 6) 양곤시 현황

● 시장

-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아 중앙에서 시장을 임명하는 형태

흘라윈(Hla Myint) : 현 양곤 시장

- 출생 : 1948 또는 1949년
- 정당 : 통합단결발전당(USDP)
- 학력 : 육군사관학교 (Defence Services Academy)
- 미얀마 육군 : 1971 ~ 2002 (준장 예편)
- 양력
 - 미얀마 육군 : 1971 ~ 2002 (준장 예편)
 - 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통합 대사 : 2002 ~ 2005
 - 주 일본 대사 : 2005 ~ 2010
 - 양곤 시장 : 2011 ~ 현재

자료 : 위키피디아



● 자매도시

- 대한민국 : 부산 (대한민국, 2012)
- 중국 : 쿤밍 (중국, 2008), 난징 (중국, 2009), 양저우 (중국, 2009)
- 베트남 : 호치민 (베트남, 2012)
- 일본 : 후쿠시 (일본, 1997)
- 네팔 : 카트만두 (네팔)

2. 도시 기초 현황

- 양곤은 2000년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으나 2005년 말 수도를 미얀마 내륙지역인 네피도로 이전

네피도(Nay Pyi Taw)

- 기초 정보
 - 2005년 11월 6일 네피도로 수도로 지정
 - 위치 : 양곤에서 북서쪽 320km 지점
 - 면적 : 7,054.37km²
 - 인구 : 92만명 ~99만명 (미얀마 3대 도시)
 - 인구 밀도 : 130명 /km²
 - 현재 도시는 건설 중이며 2013년경 완성 예정
- 어원
 - 버마어로 "왕국의 도움지" 또는 "왕이 사는 곳" 을 의미
- 역사
 - 특별한 역사적 가치는 있지 않으며, 오랜 전부터 미얀마 군대의 내륙 거점지역

자료 : 위키피디아



- 양곤시의 면적은 1853년 영국 식민지 때 0.8%, 1973년 80.55%에서 현재는 352% 이상으로 30년 전에 비해 약 4배 이상 늘어났음. 아울러 현재 양곤시 인구는 1755년 Alaung Minthayar Kyi왕 대에 약 1만명에서 현재는 약 700만 명 정도의 거대 도시가 됐다. 양곤은 미얀마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도시이며 국제 항구가 위치해 지방에서 양곤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남. 현재까지 양곤시 구역과 인구 변화 추세는 아래와 같음.

〈표 1〉 양곤시의 면적 변화 추세

연도	시대	면적(구역)
1755	양곤시 설립(얼라웅피야 왕)	2Mile
1853	영국 식민지	0,8%
1953	Phasapala	47,57%
1973	Socialistic(사회주의)	80,55%
2007 이후	-	352%

자료 :현지 주간지

- 현재 양곤시 인구는 1755년 Alaung Minthayar Kyi왕 대에 약 1만명에서 현재는 약 700만 명 정도의 거대 도시가 됐다. 양곤은 미얀마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도시이며 국제 항구가 위치해 지방에서 양곤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남.

〈표 2〉 양곤시의 인구 변화 추세

(단위 : 천명)

연도	시대	인구
1755	양곤시 최초 설립(얼라웅피야 왕)	10
1853	영국 식민지	40
1953		825
1973	사회주의	2,015
2000	-	4,000
2008	-	6,000
현재	-	7,000

자료 :현지 주간지

3. 경제 현황

● 특징

- 미얀마 무역, 산업, 부동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광의 중심지
- 미얀마 전체 GDP의 약 20% (약 8조 9300억 짜트 = 약 10.63억달러)를 차지 (회

계연도 2010 ~ 2011년)

- 남부 미얀마 무역의 중심지이며 교역 대상품은 일반 식품부터 중고자동차까지 매우 다양 그러나 금융시스템과 통신 인프라의 부재로 인하여 상업거래의 발전이 더딤

● 주요 시장

- 베이니양 시장 : 쌀, 콩, 자두 및 기타 농산물의 최대 교육 시장
- 틸라와 항구 : 공식적인 수입과 수출이 되는 항구로 미얀마 최대 교역 항구

● 공업 단지

- 양곤시내에는 최소 14개의 경공업 단지가 있으며 4,300개의 공장에 약 15만명의 인부들이 근무 (2010년 통계)
- 미얀마의 불안한 전력 수급 사정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 관광업

-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1년에 약 30 ~ 40만 정도의 관광객이 입국 (2011 양곤국제공항 기준)
- 하지만 양곤시내 관광객이 투숙할 숙박시설에 부족

4. 양곤 역사

● 초기

- 11세기 중반 몬족에 의하여 도시로 형성 (당시 도시이름 다곤)
- 1755년 알우런파야 왕(Alaungpaya)에 의하여 양곤으로 개명
- 첫번째 앙로-버마 전쟁시 대영제국에게 점령되었다가 전쟁이후 버마정부에게 돌아옴

● 식민지 시대

- 식민지 시기 구분 :
- 1852년 제 2차 앙로-버마 전쟁시 대영제국에 점령됨
- 이때부터 미얀마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가 됨
- 이 시기에 공원, 호수 및 다양한 건물들이 신축되어 '동양의 공원도시 (the garden city of east'로 불림

● 독립이후

- 1948년 일본으로부터 독립

- 1989년 군부에서 영문 명칭인 'Yangon'을 정식 발표
- 양곤은 이후 인근 지역을 흡수 통합하여 현재의 대양곤 (Greater Yangon)탄생
 - 1950년대 : 타케타 (Thakera), 남북 오카라파 (North & South Okkalapa)
 - 1980년대 : 흐하이타야 (Hlaingthaya), 시위프이타 (Shwepyitha), 남다곤 (South Dagon)
- 네윈 시절에는 양곤의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되었으며 그로인하여 인구는 더 이상 증가 하지 았음.
- 1990년대 군부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개방을 하여서 현대적인 인프라 확충 되었음
- 2008년 사이클로 나르기스의 피해로 양곤 전체 산업 시설의 75%가 파괴되었으며, 당시의 피해 금액은 약 8억달러라 추정
- 2005년 양곤에서 약 320km떨어진 네피도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였으나, 아직은 양곤 이 미얀마의 최대도시로 남아 있음.

5. 양곤 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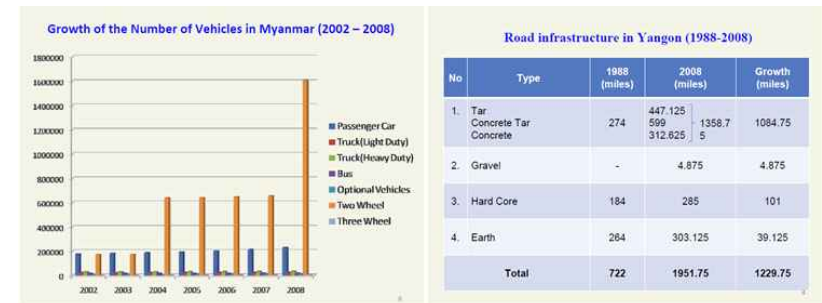
● 도시 계획

- 2011년 12월 초 미얀마 대통령(Thein Sein)은 양곤시를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양곤시 프로젝트에 일본, 싱가포르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짐.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양곤시(YCDC)와 공동으로 병원·시장·주택·도로 건설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양곤시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의 협조를 통해 30년 개발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중
 - 현재 마스터 플랜과 관련하여 대 양곤 개발 전략, 도심내 쓰레기 위생 시설 관련, 도심교통 발전 전략등 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1)
 - 위와 별도로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곤상업지역에 관한 계획은 2013년 3월 중간 발표 예정2)

● 교통

- 미얀마에서 자동차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며 최근(2008년)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함. 도로 기반시설은 최근 10년간 (1998-2008년) 1,229마일 증가하였음
-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증가 폭에 비해 도로 교통의 정체는 심각하지 않음
 - 현재 미얀마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시내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

1)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pdates 30-year plan for Yangon (미얀마 타임즈 2012년 11월 19일)
 2)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pdates 30-year plan for Yangon (미얀마 타임즈 2012년 11월 19일)



자료 :2009_Myanmar ppt

〈그림 7〉 미얀마 및 양곤 교통 상황

- 주로 버스를 이용하며, 기타 운송수단으로는 택시, 철도, 페리, 자전거등이 존재
 - 버스 :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하루 이용액 약 3백만명
 - 철도 : 현재 21 sets의 열차가 운행 중이며, 하루 13만명이 이용
 - 페리 : 매일 10대의 페리가 다른 지역으로 운행 중이며, 하루 약4만명 이용
 - 비동력 교통 : 자전거와 삼륜자전거가 양곤 교외지역에서 이용됨

〈표 2〉 양곤의 운행 중 버스 유형(2008)

Vehicle type	Vehicle capacity	Photos	Vehicle type	Vehicle capacity	Photos
City bus (air-conditioned)	50 passengers		Dyna/Canter	25 to 35 passengers	
City bus (nonr-conditioned)	45 to 52 passengers		Hilux	12 to 20 passengers	
Mini bus	30 passengers		Other Type	25 to 35 passengers	

- 도시민들의 주요 이용 대중교통인 버스의 노후화와 낮은 서비스 질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됨
 - 버스의 노후화 : 대부분 버스가 기계적 결함이 있으며, 문이 없거나 부서져있어 운행 중 낙상사고에 노출. 일부 버스는 약 60년 이상됨

- 무계획적 버스 네트워크 : 버스 노선 중복이 심각하여, 러시아워 시간의 도심 교통을 유발
- 부적절한 버스기사의 평가 체계 : 버스기사의 평가를 도착 시간과 승객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과속운행과 과적의 문제가 심각
- 정부의 버스 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 : 정부의 운영관리 부재로 소규모 버스 난립으로 중복 노선과 서비스 저하등의 문제점 발생

● 상수도

- 현재 양곤에는 하루에 1억6000만 갤런(51만1000입방피트)을 양곤 33개 구(Township)에 Cho Phyu, Hlaw Kar, Phu Kyi, Nga Moe Yeik 저장소(탱크)에서 공급하나 많이 부족함. 양곤 시민들은 양곤시(YCDC)의 수도를 62%만 사용해 나머지 38%는 자체 해결(지하수, 생수 등)함.
- 식수 공급원 중 전체 60% 정도만이 상수도 시설을 통하여 공급되는 물이며, 이 역시 적절한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 음용수로 부적절
- 이외에 식수는 지하수, 저수지, 강물등을 식수원으로 이용. 이런 종류의 식수원에는 정화되지 않은 공장폐수가 흘러 들어가 음용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사용에 부적절

〈표 〉 양곤시 주요 수자원 공급처

정수장	사용가능량	공급량	수질
Gyobyu 급수장	-	102,206 m ³ /d	음용가능
Phyugyi 및 Hlawage 급수장	-	219,553 m ³ /d	
Namoeyeik 급수장	-	170,343 m ³ /d	
Ayetaerwady 강 유역	85,800 m ³ /yr	-	미 측정
지하수	153,249 m ³ /yr	-	미 측정

자료: 2010_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Yangon_Than 재구성

- 현재 미얀마 정부는 담당자에 따르면 오는 2040년도에는 인구 증가를 대비해 수도 공급량 증가 프로젝트를 추진함. 이 프로젝트 완료 시 하루에 5억2000만 갤런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외부 전문가들은 물의 질을 향상 시키지 위해서는 공장폐수가 직접 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화학 비료보다는 생분해비료를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홍수 방지 대책

- 양곤은 급격한 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지난 12년간 도시지역이 133sq.miles에서 260sq.miles확대되었고 도시지역의 확대에 의해 우기에 더 잦은 홍수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배수관의 확대와 배수로의 직선화를 통해 홍수를 방지하여야 함

● 쓰레기

-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 경제성장, 소비패턴의 변화 등과 같은 변화로 인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

〈표 3〉 양곤 폐기물 발생 비율

	유기폐기물	종이류	플라스틱	유리류	캔	섬유	기타
양곤	76.93	2.24	17.75	0.45	0.2	1.14	1.29

자료 :Community-based 3 Rs Myanmar_Mann et al 재구성

〈표 4〉 양곤시 쓰레기 배출량

연도	배출량
1990	0.40kg/cap/day
1995	0.48kg/cap/day
2000	0.53kg/cap/day

자료 : Solid Waste Management Yangon_Lwin 재구성

〈표 5〉 쓰레기 분야별 쓰레기 배출 비율

연도	배출량
식당	60%
시장	15%
호텔	2%
공원	5%
상업시설	10%
기타	8%

자료 : Solid Waste Management Yangon_Lwin 재구성

- 전체 폐기물의 약 60% 만이 수거 및 처리가 되고 있음
- 현재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는 고형 폐기물 처리
 - 하지만 적절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의 부재, 관련 데이터 부족, 미 인허가 시설 및 지역에서의 처리, 규칙적이지 않은 수거 작업, 재활용 및 위생 환경에 관한 시민 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
- 현재 미얀마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R 정책을 장려 중
 - Reject : 비닐봉지 금지 존을 만들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장려함
 - Reduce :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 모두에서 폐기물 양을 줄이도록 노력함
 - Reuse and Recycling : 재사용과 재활용을 장려하여 자원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PART III. 대 양곤 (미얀마) 투자 환경 및 동향

1. 양곤 (미얀마) 및 인근 국가 투자 동향

-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중간에 위치, 동-서남아시아를 연결 및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또한 다양한 천연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미 개척 시장으로 글로벌 자본의 최고 투자처로 급부상 중이며 특히 중국, 미국 일본 인도의 영향력 확보 경쟁이 심화 중
- 2012년 4월말 기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누적 승인 금액으로 40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12월에 비해 2천만 달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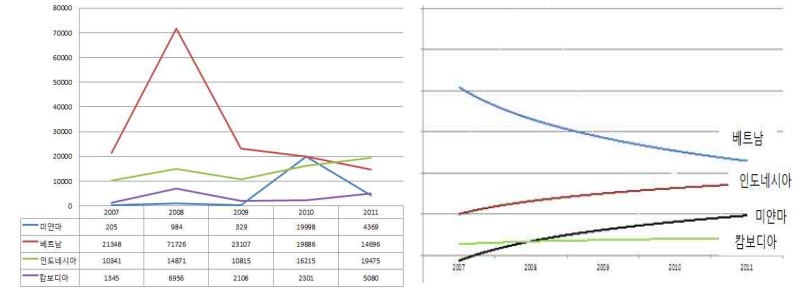
〈표 6〉 미얀마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

(단위 : USD백만)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중국	13,949	34.27%	전력	18,874	46.37%
태국	9,568	23.51%	석유와 가스	14,063	34.55%
홍콩	6,308	15.50%	광업	2,814	6.92%
한국	2,941	7.23%	제조업	1,761	4.33%
영국	2,760	6.78%	호텔/ 관광업	1,065	2.62%
싱가포르	1,804	4.43%	부동산	1,056	2.60%
말레이시아	1,027	2.52%	축산/어업	324	0.80%
프랑스	469	1.15%	교통/통신	314	0.77%
미국	244	0.60%	공업단지건설	193	0.47%
인도네시아	241	0.59%	농업	173	0.43%
네덜란드	239	0.59%	건설	38	0.09%
기타	1,149	2.83%	기타 서비스	24	0.06%
총계	40,669	100.00%	총계	40,699	100.00%

자료 : 코트라, 미얀마

- 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투자액은 아직 적지만 (인도네시아 대비 1/5, 베트남 대비 1/3) 2007년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추세선 참조)
- 현재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외국인 투자액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외국인 투자액 추세선

자료 : 코트라 주요투자국 투자환경 비교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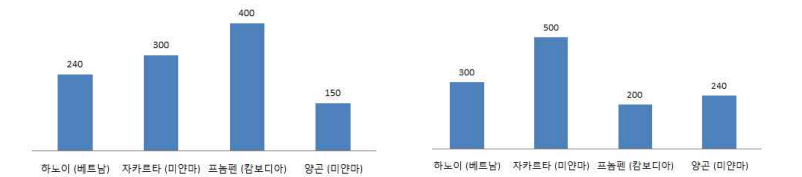
〈그림 8〉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외국인 투자액 현황

2. 투자 환경

1) 긍정적 요소

● 풍부한 저 임금 노동력

- 주변 동남아시아에 비해 매우 저렴한 임금과 노동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 비율
- 미얀마의 최저 임금은 약 32달러로 253달러인 태국과 156달러인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당히 저렴
- 노동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구 (15 ~28세)가 1,300만명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사무직 급여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생산직 급여

자료 : 코트라 주요투자국 투자환경 비교 자료 재구성

〈그림 9〉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급여 현황

-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미얀마에서 대표적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봉제산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반증
- 만약 미국이 2003년 미얀마에 경제제제를 취하지 않았다면 봉제산업은 지금보다 훨씬더 발전했을 것

● Pioneer 전략이 통하는 미개척 시장

- 미얀마는 50년간의 군부 독재로 서방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시장이므로 개척자전략을 통한 있음
 -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경쟁구도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시장에 진입하면 유리한 입지 차지 가능
- 이미 세계 Big 4 (중국, 미국, 일본, 인도)의 기업들은 시장이 개방 직후 대규모 투자를 실시 또는 계획 중
 - 미국은 코카콜라, 펩시코가 현지업체와의 합적을 통해 시작 진입을 본격화
 - 통신시장은 외국업체에게 면허 발급이 예정되어 있어, 초기에 시장 진입 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미얀마 휴대폰시장의 선점 가능

양곤 산업 공단

- o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는 양곤으로 내수판매든 수출요이든 제조업을 영위하기에는 양곤 지역이 가장 적합함
 - 양곤 지역 이외에도 만달레이, 사가잉, 예와디 등 각 주 별로 공업 단지가 있으나 양곤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외국 기업이 입주할 만한 공단은 없음
- o 양곤에 조성된 공업 단지는 쉐베타, 사우스다공, 홀리잉따야, 밍글라돈 산업단지등이 있으며, 이중 양곤 시내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홀리잉따야 공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
- o 미얀마 정부는 양곤 시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필라와에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할 계획으로 미얀마 정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 필라와는 특별경제구역은 수출자유 구역에 해당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대 8년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임. 또한 수출입 허가를 위한 정부 사무소를 개설 예정이어서 수출입 허가 발급 절차도 간소화 예정

〈표 7〉 양곤 지역 공업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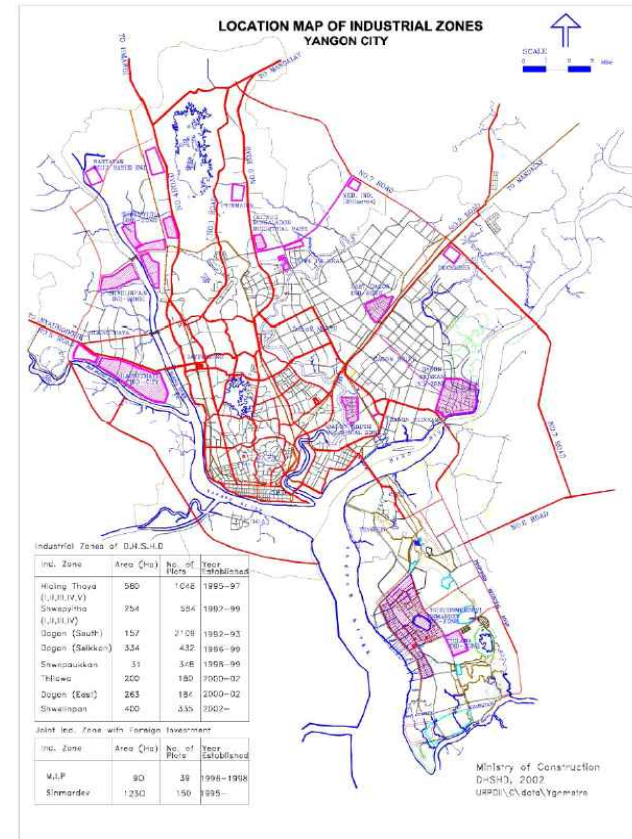
단지명	설립연도	규모	시행사
Shwe Pyi Industrial Zone 1	1990	1,23km ²	주거주택개발국
Shwe Pyi Industrial Zone 2	1992	0,64km ²	주거주택개발국
Shwe Pyi Industrial Zone 3	1999	194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1992	95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1992	475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outh Dagon Industrial Zone 2	1992	204 Acres	주거주택개발국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1995	35 Acres	주거주택개발국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1-5	1995	13,000 Acres	주거주택개발국
Dagon Port(Seikkan) Industrial Zone	2000	1,208 Acres	주거주택개발국
Yangon Industrial Zone	2000	500 Acres	Zaykabar and 주거주택개발국
Mingalardon Industrial Park	2000	744,500 m ²	Mitsui Group, Hong Leong Group, Kepple Group and DHSHD

양곤 산업 공단

〈표 계속〉 양곤 지역 공업 단지

단지명	설립연도	규모	시행사
Thanlyin-Kyauktan Industrial Zone	1997	3,039 Acres	Simmardev Int'l Pte Lte and 주거주택개발국
Thilawa Industrial Zone	2001	125 Acres	주거주택개발국
Dagon East Industrial Zone	2001	500 Acres	주거주택개발국

자료 : 코트라, 2012, 미얀마



자료 : 코트라, 2012, 미얀마

〈그림 10〉 양곤 산업공단 위치도

● ‘천연자원의 보고’ 미얀마

- 미얀마는 ‘자원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천연자원의 보고’ 이나 그동안 선진국의 경제제재 및 투자회피로 미개발된 상태
 - 고부가가치 자원 (원유, 천연가스, 티크, 보석등)뿐 아니라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 등 한국 6대 전략광물의 매장량도 상당하나, 현재 생산되는 양이 극히 적어 개발 가능성이 높음

〈표 8〉 미얀마의 천연자원 보유 현황 (2010)

구분	생산량	소비량	매장량
석유 (천 배럴/일)	18,88 (74위)	42,43(101위)	50,000
석탄 (천 톤)	1,483 (45위)	1,116 (78위)	390,000
전력 (십억 Kwh)	5,81 (103위)	3,79 (113위)	-
기타 천연 자원 및 희소금속	목재용 수목 (전 세계 티크 생산의 80%) 철광석 (7.2억톤) 구리 (11억 톤), 아연 (532만 톤), 우라늄 (40만 톤) 니켈 (4,226만톤), 주석, 텅스텐, 납, 대리석, 석회암, 보석 (전 세계 루비 생산의 99%) 등		

자료 : 최해명, 2012, 글로벌 자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얀마, 삼성경제연구소

● 집중된 인구나 높아가는 생활 수준

- 대부분의 인구가 양곤 (426만명), 만달레이 (101만명), 네피도 (99만명) 등에 집중되어 위 3개 도시만 집중공략하면 단기간에 가시적 낼 수 있음
- 미얀마를 포함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 강 신흥 3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8,300만 명 규모의 시장이 형성
 - 2012년 기준으로 메콩 강 신흥 3국의 평균 GDP가 1,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이 기초생활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

● 외국 자본을 위한 정책

-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지향적 법 • 제도 정비 진행 중
 - 외국인 투자 관련 총괄부서 설치, ‘투자조정법’ 개정, 경제특구설치, 외국인 토지사용 완화, 허가절차 간소화 조치, ‘원스톱 서비스법’등 제정 추진

〈표 9〉 외국인 투자법 개정 내역 (2012년 8월)

구분	현 외투법	신 외투법
지분 취득	단독 투자 : 최대 100% 합작 투자 : 최소 35%	
투자제한 업종	우편, 통신, 항공, 철도 등 14개 분야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얻어 49%까지 지분 취득 가능
최저투자금액	제조업 : 50만불 서비스업 : 30만불	500 만불
투자인센티브	3년간 소득세 면제	5년간 소득세 면제
토지/ 건물 임대	기본 30년 10년 +5년 연장가능	기본 50년 10년 + 10년 연장 가능
임대 대상 토지/ 건물	정부 및 국영기업 소유 토지와 건물	정부 및 국영기업 소유 토지와 건물, 민간인 토지와 건물 임대가능

자료 : 코트라, 2012, 미얀마 신투자제도 설명회, 코트라

〈표 10〉 해외 투자 진출 절차별 관계 기관, 서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구분	투자 허가 신청	무역업 허가 및 회사등록	무역업자 등록
신청 기관	o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o경제기획부 산하 회사등록사무소	o무역등록국
서류	-투자업체(또는 개인) 재정도: (최근 1년 간 회계 감사를 필한 검토서) -영업상태에 관한 은행 추천서 -투자신청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세부 기술서 -연간 예상 순이익 -연간 예상 외환가득액, 연간 사업 운영 자금 -투자비 회수 기간 -고용 창출 효과 -국민 소득 기여 정도 -국내외 시장 동향 -100% 단독투자의 경우 투자 기관 주무부서와의 예약서 초안 -합작 투자인 경우 현지업체와 체결한 비망록, Articles of Association, 계약서 초안	-Form A -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s of Association)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questionnaire -기타(미얀마에서 수행할 영업 활동, 미얀마 기업 설립 후1년간 소요될 운영 자금) -여권 사본 및 은행 구좌 사본을반드시 첨부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form -회사등록증 -Form 6 -Form 26 여권사본
소요 비용	공식소요 비용 없음	신청비 : 100달러 등록비 : 1,500달러 갱신비 : 500달러 (2년마다 갱신)	50,000 키아트 (1년) 100,000 키아트 (2년)
소요 기간	건 별로 다르며 최소 수개월 소요	건 별로 다르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약 45일

자료 : 코트라, 미얀마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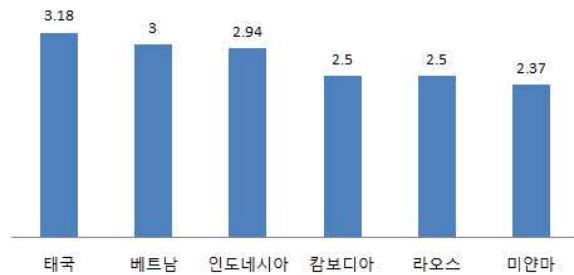
2) 부정적 요소

● 경제개혁과 민주화로의 이행과정에 따른 변수들

- 위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신뢰 문제
 - 적극적인 경제개혁 • 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군부의 정부 장악력이 워낙 강력하여 지속성에 관한 의구심이 계속됨
 - 현 집권세력인 USDP에서도 개혁파와 보수파로 나뉘져 있고, 개혁파인 세인 대통령의 지도력에 맞서는 과거 군부 주도의 보수세력이 개혁의 걸림돌

● 인프라 부족과 토지가격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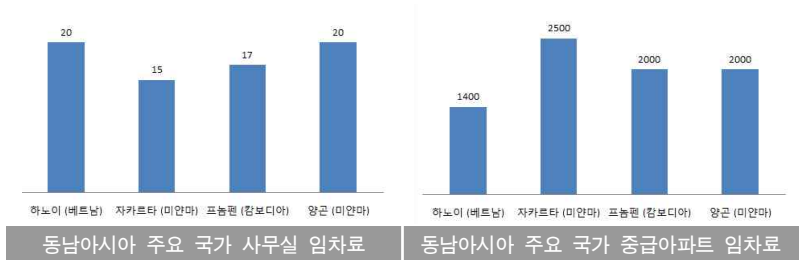
- 1962년 이후 외부세계에 문을 닫은 미얀마는 대부분의 인프라 낙후 됨
 - 미얀마의 도로 포장율은 약 50% 미만이며, 주요 도시를 벗어나면 10% 미만으로 떨어져 월드뱅크의 물류지수에서 미얀마는 최하위 수준
 - 전력난 역시 심각하여 국민의 75%가 전기를 없이 살고 있으며 주요 공단은 8시간의 전기공급을 보장 보지 못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얀마의 인프라 수준은 태국의 약 1/10 정도로 나타남



자료 : 세계은행 재구성

〈그림 11〉 동남 아시아 주요 국가 물류지수

-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 중
 - 현재 미얀마 주요 공단의 평당 토지 단가는 185 ~ 380달러
 - 또한 외국인 전용거주 아파트 (침실 1개)는 월세는 약 2,000달러 수준
-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자 급증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에서는 서방세계의 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과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에 집중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일정기간 상승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



자료 : 코트라, 주요 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 재구성

〈그림 12〉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사무실/아파트 임차료 현황

● 금융시스템 부재와 인권문제

- 외환과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회를 제약할 가능 존재
 - 고질적인 외환부족으로 과실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
 - 또한 타 국가에는 없는 해외송금세 (약 2%)가 있어 해외송금이 잦은 외국 기업에게는 큰 부담

〈표 11〉 동남아시아 주요 투자 국가 해외송금세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해외송금세	2%	없음	없음	없음

자료 : 코트라, 주요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 재구성

- 미얀마 정부는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 환율과 큰 차이를 보임
 - 미얀마는 고정환율제로 1달러에 6차트이지만 실제 거래는 900차트 수준에서 거래됨
- 금융 시장 미형성으로 공식적인 루트로 미얀마내에서 자금 조달 불가능
 - 은행의 경우 미얀마 투자상업은행이 유일하며, 이나마도 양곤과 만달레이 두 곳만 존재
 - 주식시장은 2015년 설립 목표로 현재 논의 중
- 서방 경제제재의 단초가 됐던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는 완화되고 있지만 진행형
 - 미얀마는 버마족 이외 100 이상의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형태인데 이중 카친족과 정부군의 분쟁이 심각
- 만약 인종간의 분쟁이 심각해질 경우 자연스럽게 군부의 입김이 세져 민주화가 가로 막힐 경우 외국인투자환경이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

PART IV. 주요국가 양곤 (미얀마) 투자 현황

1. 중국

●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목표

- 중국은 군부독재시설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유일한 후원자로서 독점적 영향력 발휘 인도양 진출 교두보 및 자원 확보 성과
- 뱅갈만에 위치한 짜옥유 개발로 인도양 연결로 확보로 상당한 물류비 경감 효과 유발
 -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천연가스 및 원유 수송을 담당할 짜옥유- 쿤밍간의 파이프라인은 기존의 해양 수송보다 최소 3,000km 이상의 거리를 단축(2013 상반기 완공 예정)
 - 파이프라인을 따라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로 내륙 교통 수단을 통한 인도양 진출 발판을 마련



(그림 13) 짜옥유- 쿤밍간의 석유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전- 후

- 중국 중서부 개발에 필요한 전력, 석유, 천연가스 확보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얀마의 자원 개발에 약 170억 이상 투자
- 서방세계의 지원이 강화되고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한 미얀마의 반발이 나타남에 따라, 자국 이익 중심 전략에서 '연성 전략'으로 변화 추진 중
- 태인 세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교력을 발휘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자원만을 취득하는 중국 이익 중심 관점이 아닌 현지 사회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조업 진출 분야 확대 예정

- 만달레이 및 레피도 공항건설 지원, 델라와 경제특구 건설참여, 양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소 투자
- 특히 통신, 자동차, 가전등의 제조업 진출 가속화
- 미얀마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약 50년간 구축한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은 미얀마 개발 정책의 제1의 파트너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미얀마 진출..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의 기초를 변화 시키다

- 중국이 기존의 세계 경영전략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깨고, 처음으로 주변국 분쟁에 공개적으로 개입
 - 중국은 자국의 세계 경영전략인 베이징 컨센서스에 따라 타국에 지원하는 하되 내정은 불간섭
- 하지만 미국의 미얀마 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얀마 북부의 내전 중재를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
 - 2월 4일 중국정부는 윈난성의 변경 휴양도시인 루이리에서 양측간의 공식 회담을 주선하고,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로이터 및 세계 주요 언론들은 동남아시아내 중국의 입지 공고와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등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편을 들며 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



2. 미국

● 경제제제를 지렛대로 영향력 확대 및 기업 진출 개시

- '아시아 중시정책' 이후 고위인사 방문으로 관계 급진전
 - 2007년부터 양국간 대회가 시작. 2011년 후반 테릭 미첼 (미 국무부 미얀마 특사) 및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 방문이 터닝 포인트
 - 미국의 선제적 행보는 유럽, 일본 고위인사 방문과 관계 개선으로 확대
 - 중국 압박과 미얀마 진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가 목적
 - 미얀마가 인도에 이어 대 중국 견제망 구축의 마지막 외교적 퍼즐 지역으로 판단. 미국은 미얀마 우호관계 구축으로 필리핀 ~ 태국 ~ 미얀마 ~ 인도

를 연결하는 안보벨트 구축 구상

_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진출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

- 2012년 9월 세인 대통령 및 아웅산 수지의 미국 방문이후 제재완화 급진전
- 미국은 일괄적 경제제재 해제가 아니라, 미얀마의 정치 자유화 및 미국과의 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_ 제재 해제 정책 : 비자발급, 원조금지

_ 완화정책 : 금융거래 금지, 자산동결, 미얀마 제품 수입금지 (무기류 제외), 투자금지

_ 미 철회 정책 : GSP 적용금지 (미얀마 상품에 관한 특혜 관세 적용), 무기수출금지

- 제재해제로 인하여, 2012년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진출 시작
 - 웨브론, 코카콜라, 포드, 마스터카드등 미국 대표기업들이 미얀마 진출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현지 기업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사업권을 확보

〈표 12〉 주요 진출 기업

기업	내용
캐터필러	2011년 8월 미얀마 정부 고위관료와 접촉, 엔진과 증장기기 판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이와 관련, 캐터필러는 정보 진위는 미언급
GE	2012년내 양곤에 오피스 개설, 가스터빈 등 발전 인프라 사업기회탐색
웨브론	말레이시아 회견 (2012. 6)에서 "미얀마 석유가스 매장량을 언급하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진출하고자 한다"고 언급 (미얀마 안다만 위치한 가스전 권익 보유중)
코카콜라	미얀마 Pinya사와 협력하여 생산공장 건설 발표 (2012. 9)
팰시	현재 진출 시기와 방법 모색중
포드	강력한 진출의사 표명 (2012. 09)
마스터 카드	카드업계 최초로 미얀마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발행할 수 있는 자격 획득 (2012.9)
비자카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발행 자격 허가를 약속 받음

조대현, 2012, 문 열린 미얀마, 일본이 먼저 들어 갔다, 포스코경영연구소

- 미국의 미얀마 제재 해지는 중국의 아시아 경영 전략의 견제로 시작이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중국, 일본, 인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가 진행 될 것 보임

3. 일본

● All Japan (민관합동 진출) 기치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출

- 태인 세인 대통령 일본 방문 시 3대 경제협력 방침 (국민 생활향상 지위, 인재개발지원, 인프라 개발 지원) 합의 및 3,000억엔 (3.6조원) 채무 탕감등의 대대적 지원 합의로 진출의 급물살
- 일본 정부, 기업진출 행동계획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전방위 지원
 - 각 부처별 지원책 마련 (9월), 민관협의회 창설 (10월)로 적극적 지원 개시
 - _ 대표적으로 일본 외무성 산하의 국제협력기구 (JICA)를 통하여 약 6000억엔 (7.2조원) 규모의 매콩강 인프라 정비 사업 지원
 - 미얀마 정부와 경제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10월에 발족한 후 지원내용과 시기 등을 포함한 행동계획 협의 착수
 - _ 양곤-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다웨이 항구 개발 포함
 - _ 인프라 이외에 상거래 확대에 필요한 법 정비 및 인재 육성 지원
- 2012년 들어 일본의 모든 상사가 미얀마 진출을 하고 있으며, 일반 소매업부터 중공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진출 시작
 - 일본 상사들은 양곤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
- 전문가들은 일본기업의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진출에 놀라움 표시
 - 일본은 본국 또는 동남아 등지에 있는 제조업 기반을 미얀마로 이전하겠다는 전략으로, 현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사업영역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일본은 중국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고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표 13〉 주요 진출 기업

기업		내용
상사	마루베니	유와미 복합화력발전소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 (380만달러) ※ 미얀마 신정부 출범 후 일본기업 최초 수주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인프라, 식량분야 사업확대 모색 중
	이토추 상사	희토류 금속 등 자원개발 사업화 조사 5월 실시 복수의 일본기업과 해양가스전 개발사업화 조사 위한 검토작업 시작
	소지쯔 상사	양곤에 각각 100ha 규모의 공업단지 2곳 건설 중 (가전, 섬유, 자동차등 50개사 정도 일기업 입주 목표, 2015년까지 토지양도 계획)
	마쓰이 상사	화학비료 플랜트 등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화 조사 실시 양곤 발전소 및 상하수도 개수도 일본정부 지원통한 수주 가능성 모색중
	히타치	전력, 도시개발, 교통 등 인프라 사업 추진
편의점		로손, 미니스톱 연내 1호점 개점 예정 100엔샵 (다이소) 3월 1호점 출시
식음료		일본 3위 업체인 'ITOEN' 청량음료 합작 공장 신설, 2012년 판매 예정
Honey		여성복 제조 자회사 설립 발표 (2012, 2)
Foster Electric		스피커 헤드폰 등 제조, 판매 거점 2012년 설립 예정
금융	미츠호 코퍼레이션 은행	2012년 4월 6일, 주재원 사무소 개설 미얀마 관련 정보 연결, 수집 체제 정비 및 거래지원
	미쓰이스모토은행	미얀마 민간은행과 지원각서 체결
	다이와 연구소 도쿄증권거래사	미얀마 중앙은행과 4월 10일, 미얀마에서의 증권거래소 설립 및 자본시장 육성 지원에 협력관련 각서를 체결하는데 합의
IT	NTT 계열사	NTT 데이터, 일본 오프쇼어 개발 거점으로서 2012년 9월 자회사 설립 NTT 도쿄모 : 일본 휴대전화의 현지 국제로밍 위하여 정부와 교섭 시작
자동차 및 부품	혼다	양곤에 사무소 설치 신청
	이스즈 자동차	양곤에 자동차 조립공장 인수, 트럭생산시작. 일 자동차 업계 현지 조립생산 최초
	마쓰이 상선	2012년 3월 중순, 24년말 양곤에 콘테이너선 취항
전일본공수 (ANA)		12년 만에 미얀마 정기편 재개를 표명 (2012.4), 연내 취항 예정 조대현, 2012, 문 열린 미얀마, 일본이 먼저 들어 갔다, 포스코경영연구소

- 일본은 자국 경제의 판로로 미얀마를 고려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부터 ODA 지원으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진출 중

4. 인도

● 동방정책 발표 (92) 이후, BIMSTEC 회원국인 미얀마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지역 영향력 확대에 주력

- 중국의 남진정책에 대응으로 동방정책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흡. 하지만 미얀마가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급격히 약화되는 중
 - 동북부 5개 지역 경제발전, 미얀마산 천연가스 및 천연자원 확보, 동남아 영향력 확대 등 그 동안 중국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미약
 - _ 인도는 인도 동북부 ~ 미얀마 ~ 태국으로 연결되는 육상도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 이에 반해 중국은 이미 미얀마 만달레이까지 육상 무역로 완공
 - _ 천연가스 수급용 파이프라인도 중국이 2013년 완공 예정인 반면 인도는 이제 시트웨 항구 개발에 착수
- 중국과 차별화되는 미얀마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중국 경쟁력 제고 추진
 - 인도는 중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미얀마의 낙후된 산업시설 기반과 인적 자원 개발 지원에 합의
 - _ 합의 내용 : 1) 미얀마 서북부 ~ 인도 동북부를 연결하는 80km 고속도로 건설 합의, 2) 미얀마 청년을 위한 작업기술센터 설치, 3) 농업자금을 위한 1,000달러 지원과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사업 착수
 - 인도 싱 총리의 미얀마 방문으로 관계 긴밀화
 - _ 방문당시 싱 총리는 미얀마 농업 근대화에 5억 달러 차관제공 및 인도 ~ 미얀마 ~ 태국 연결 도로 건설 합의
- 현재 석유, 천연가스 분야의 ONGC, ESSAR, GAIL, Jubilant와 전력 분야 NHPC 및 타타 자동차등이 주요 진출 기업
- 인도는 미얀마 진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합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위하여 인도와 미얀마 지원을 늘리고 있으므로 향후 5 ~ 6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PART V. 한국의 미얀마 진출 현황

● 2012년부터 정부간의 공식적 교류 활성화중이며, 민간에서는 천연자원 및 봉제사업 중심의 교류 활성화 중

- 2012년 국가 고위층의 방문이 본격적인 방문의 시발점이 됨
 - 2012년 5. 15 ~17일까지 이명박 대통령, 외교통상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등의 주요 인사가 미얀마에 공식 방문
 - 미얀마 세인 대통령, 아웅산 수지여사등을 예방하고 양국간의 협력관계 증진 논의
-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보다는 경제발전 지식전수 사업 중심의 전략
 - Big 4 (중국, 미국, 일본, 인도)에 비해 대규모 투자가 어려우므로 미얀마개발연구원 (한국의 KDI와 동일기능) 설립 지원, 한-미얀마 경제포럼등의 사업 진행
- 천연자원 개발 및 봉제사업 중심의 기업 투자
 - 대우인터내셔널 주도로 미얀마 북서부 해양에서 천연가스 개발 진행중. 매장량은 약 4조 5천억 입방피트이며, 2013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 수출 예정
 - 약 60개의 한국 봉제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고있음.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은 많은 국내기업 이전 예상
- 투자보장협정 미체결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존재

〈표 14〉주요 진출 기업

회사명	업종	제품명	모기업
대우무역	무역업	일반상품	(주) 대우인터내셔널
효성	무역업	철강, 화학제품	효성
대우목재	제조업	합판	(주) 대우인터내셔널
대우 E&P	제조업	자원개발	(주)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봉제	제조업	의류봉제	(주) 대우인터내셔널
미원쉐타진	제조업	PVC 파이프	(주)대상
포스코	제조업	아연도금 강판	포스코
세계물산	제조업	봉제의류	에스지위카스
제우	제조업	봉제의류	스타일러스
해외	제조업	봉제의류	해외무역
에스콰이어	제조업	정장구두	(주)에스콰이어

[미얀마 투자 성공사례] 미얀마 포스코

○미얀마 투자 개요

- 경과
 - 1993 ~ 97 주재원 파견,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 준비
 - 1997. 01 합작 사업 파트너 선정, 계약 체결
 - 1997. 10 회사 설립 등록
 - 1997. 12 공장 건립 착공
 - 1998. 12 공장 건립 완공
 - 1999. 01 공장 가동
 - 2005. 06 공장 가동 중지
 - 2006. 06 공장 가동 재개
 - 2008. 09 사상 최대 흑자 실현
- 사업 개요
 - 제품 : 아연도금 골판 및 평판 (지붕재, 연간 3만 톤)
 - 종업원 : 124명 (2007년)
 - 합작사 : UMEHL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
 - 지분 : 포스코 70%, 합작사 30%
 - 투자비 : 530만 (자본금 전액 포스코 투자, 합작선 부지 제공)

〈표 15〉 최근 경영실적

구분	2003	2006 ~2007.2	2007.3 ~12	2008.1 ~7	2009	2011
매출액 (천달러)	10,109	휴업	8,631	11,746	20,156	27,734
순이익 (천달러)	2,807	-1,486	52	1,444	1,668	5,311
총자산 (천달러)	9,681	5,320	9,400	9,855	-	-

조대현, 미얀마 포스코

○ 미얀마 투자 초기 성과와 가동 중단

- 초기 투자 성과 (1999 ~ 2004)
 - 포스코는 가동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3년간 가동으로 투자 자본금을 넘는 누계 순이익 발생. 이는 동종업계 선두주자인 일본계 업체를 추월하는 실적. 이는 현지파트너의 적극적인 협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미얀마 주요 인사를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친한 분위기 조성함
- 조업 중단 및 재개 (2005 ~ 2006)
 - 이러한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산 지붕재에 대한 규격 규제가 강화된 반면, 2004년부터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저가의 미수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지붕재가 수입산 대비 경쟁력 상실
 - 이로 인하여 미얀마내 포스코의 조업 단축 및 중단 되었으며 밀수품이 시장 장악
 - 2006년 실권자인 Than shwe 장군에게 퇴직 인력의 구제 필요성 및 미래 미얀마 철강 산업 부흥을 위하여 포스코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밀수품 폐해 및 단축을 지시하여 조업 재개의 계기 마련

PART VI. 참고문헌

[일반 문헌]

김중상, 2011, 미얀마 현지화 강세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코트라
강선구, 2012, 빗장 푸는 미얀마 투자 시회의 허와실, 엘지경제연구소
조대현, 2012, 문 열린 미얀마, 일본이 먼저 들어 갔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최명해, 2012,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얀마, 삼성경제연구소
코트라, 2012, 미얀마, 코트라
코트라, 2012, 미얀마 신투자제도 설명회, 코트라
코트라, 2012, 주요 투자유망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투자환경 비교, 코트라

Jose A. Gomez-Ibanez, 2012, Yangon's Development Challenges, Harvard Kennedy School

Mr. U Mann, 2012, Community-Based 3Rs Practices In Myanmar

Ni Lar Win, 2010, A Study on Storm Water System in A City with Rapid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신문 문헌]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pdates 30-year plan for Yangon (미얀마 타임즈 2012년 11월 19일)

미얀마, 일본의 차관제공으로 '빗쟁이' 면해 (아세안투데이 2013.01.30)

美日印 미얀마 끌어안기... 결별위기 中은 안절부절 (동아일보 2013.01.23.)

앞마당 미얀마 미국 넘보자 중국, 내전 중재 카드 맞불 (중앙일보 2013.02.05.)

[웹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위키백서 <http://wikipedia.org>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네이버 www.naver.com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월드뱅크 www.worldbank.org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미국중앙정보국 www.cia.org